

홈 > 뉴스 > 전국

진안군, 치과주치의 제도 현실화

2017년 03월 26일 (일) 05:29:35

최창윤 전문기자 ✉ choipress@newsmaker.or.kr



▲ 학교구강보건실에서 구강실태조사 모습/최창윤 기자(사진=진안군)

진안군 보건소 부설 진안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서

(뉴스메이커=최창윤 기자) 진안군보건소가 어린이들의 구강관리를 위해 진안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(방학기간 제외) 매주 1회(목요일)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.

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진안군 보건소 부설 학교구강보건실을 진안초등학교에 설치하여 성장기 초등학생들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과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사업이다.

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주1회 방문하여 구강검진, 불소도포, 전문가 구강보건교육, 불소양치 및 올바른 이 닦기 지도, 치아 흠 메우기, 구강위생용품 선정, 교환기 유치발거, 초기충치치료, 2차 진료기관 의뢰 등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꿈에 드리던 주치의 제도의 현실화를 부르고 있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© 뉴스메이커(<http://www.newsmaker.or.kr>)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